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한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의 개발에 관한 연구

신인순*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 제4298호로 인증을 마친 이후,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공표 3주 만에 바로 캠프에 적용시켜서 실시한 제1회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한 것이다.

첫째, SDGs를 캠프 주제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첫 시행이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아웃도어캠프임에도 주요활동이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에 걸맞게 개인적으로 실천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참가청소년은 세계시민의식 중 세계지향성이 낮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개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캠프답게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 같은 인사를 하며 모듬을 구성하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보완하고, 차별 반대 활동인 빈디 게임을 강화한다.

둘째, 세계와 아웃도어라는 캠프 명칭에 걸맞도록 여러 나라 인사법으로 모듬 만들기, 난민체험 하이킹, 나의 다짐, 야외취사 등 야외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나의 다짐을 추가하여 자연 속 명상으로 참가자의 실천의지를 다지게 한다.

넷째, 참가자들의 세계지향성이 낮은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애를 넘어 인류애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완한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제2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 하는 모듬을 정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차별을 경험하는 빈디 게임, 합의도출 활동, 세계시민축제,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며 하이킹을 하는 난민체험 하이킹, 실행의지를 다지는 야외명상(나의 다짐) 등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사례수가 많지 않고, 1회 시행한 캠프의 내용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주제어] 세계시민, 캠프, 지속가능발전목표

* 신인순(E-mail: isshin@ssc.ac.kr)

학위취득대학: 가톨릭대학교

현직: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접수일: 2017년 4월 1일, 논문수정일: 2017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30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 Outdoor Camp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in, In-soon

<Abstract>

A study is for the evaluation and feedback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first global citizen outdoor camp(no. 4298) applying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the adoption of SDGs as a camp theme is meaningful, but it is the first implementation, so it needs a lot of supplement. Secondly, outdoor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doors. Third, a program should be complemented to enhance the willingness of the individual to meet the purpose of global citizen education. Fourth, participant adolescents had low world orientation among the global citizen consciousness.

Based on these assessments, the following should be improved.

First, we complement the Ice Breaking activities that encourage groups to organize as greetings as in camps, and reinforce Bindi Games, which is anti-discrimination activity.

Second, we start the camp with greetings of various countries as the name of the camp called "World and Outdoor" suggest, and strengthen outdoor activities such as refugee experience hiking, my commitment, and outdoor cooking.

Third, we include the time of commitment in meditation in nature.

Fourth, it complements the opportunity to expand beyond the state and into humanity so that participants can improve their low world orientation.

Based on the above improvement directions, the 2nd Global Citizen Outdoor Camp is suggested to include greetings of various countries of ice breaks, the Bindi games, consensus-building activities, global citizen festivals, and the refugee experience hiking. The camp should be supplemented by outdoor hiking and medita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number of cases is small, but only to the content of the camp that was once conducted.

[keyword] *Global Citizen, Cam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 서론

2016년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전쟁,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 전염병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난제들은 협력과 연대 없이 해결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구촌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상호 문화적 감수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UNESCO는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2012년 9월 유엔 총회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통해 지구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글로벌 교육목표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기존 목표인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향상’에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추가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실행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강조하였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의견을 함께 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고민과 모색이나 실행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2015)도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에서 “세계시

민성의 개념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실천적 방법 또는 ‘교수법(Pedagogy)’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제언하였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유니세프의 국제교류캠프 효과를 알아본 논문에서 신인순과 김옥순(2012)이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공교육은 물론 비정규 교육 차원에서도 다양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제언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스카우트가 100여 년 동안 스카우트 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온 자연배경, 소그룹 활동, 상징체계 사용 등 스카우트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주제로 삼아 청소년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 제4298호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및 수정보완, 그리고 나아가 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세계는 하나 -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 제4298호로 인증을 마친 이후 2015년 9월 25일 UN에서 160여 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향후 15년간 실행의 의지를 다지며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로 표기)를 공표 3주 만에 2015년 10월 15일~16일 바로 캠프에 적용시켜 실행하였다. 이 캠프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다듬어지고 발전되어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첫째,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의 프로그램 구성이 적절한가, 둘째,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 참여자와 여타세계

시민교육캠프 참여자의 세계시민의식에는 차이가 있는 가로 정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차기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또래관계가 중요해지고 사회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세계시민교육을 하기에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등 입시제도가 변화하고 자유학기제가 출발한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경쟁 중심의 학교 현장을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실행 의지를 다져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청소년활동을 개발적용하려는 일련의 연구과정은 청소년활동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 활동

세계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지구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때때로 국가 간 법률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또는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일 세계 곳곳에서 테러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요즘,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며 다양한 방법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 시민교육과 달리 세계시민교육에서 학습자는 더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가 되며 변혁적인 교육을 받고 과정중심적이고 문제해결중심적인 교육, 참여지향적이고 실천지향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적 다면적 형태의 교육”이다(한경구 외, 2015).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시민성은 시민사회의 덕성으로서 근대적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특수 이익에의 경도를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와 심리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심연수, 2008).

“청소년기는 사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화는 사회의 현존하는 관습·전통·규칙 등을 전수하는 일종의 보수적 과정으로 국민들의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순응을 전제로 하므로, 국민들이 사회화 과정만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가치와 사회관습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능·창조성·독립성을 통해서 개개인의 진정한 선량한 시민성을 발전시키지 못한다”(심연수, 2013). 그렇기에 각별하고 의도적인 노력으로 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며 세계시민성 역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함양될 수가 있다.

우선 각 국가들은 공교육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일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를 보면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민(Global Citizenship)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내용 체계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역사교육의 시계열성이 강조된 반면, 일본은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추상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환경확대법’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천호성, 2011). 과거 한국의 청소년국제교류 국정목표에 ‘친한과 지한과 육성’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미국도 1990년대까지는 ‘국경을 넘는 경쟁력(TNC;

transnational competence)’을 청소년에게 증진시키고자 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9.11테러 사태를 경험하면서 얻은 인식이 반영되어 ‘상호이해’와 ‘공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김기홍, 박소영, 2009). 영국은 이미 2004년 수립된 ‘교육 및 아동복지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아확립을 추구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김옥순, 신인순, 2013). 한국도 2016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 계획의 주요 방향을 “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겠습니다. ②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③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④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⑤ 한국 교육, 세계와 소통하겠습니다.”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미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학교급별 목표를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지니게 한다’로 설정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2008년 유아세계시민교육활동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공교육 외에 다양한 세팅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책자발간 및 교사 연수, 유니세프의 세계시민 지구촌 캠프와 세계시민교육활동,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육센터 미지(MIZY)의 청소년세계시민여행교실 ‘디모(Democracy)를 찾아서’,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원 연수 및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교실에서 찾은 희망’, 굿네이버스의 세계시민교육-찾아가는 나눔교육(One-heart) 등이 국내에서 시도되어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도 1991년도 세계잼버리의 모토를 ‘세계는 하나’라고 하여 실행한 이후 각

교급별 교본에 세계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여 활동을 펼치며 매년 10월 3째 주말에 아마추어무선과 인터넷으로 전세계의 스카우트대원이 함께 소통하는 JOTI(Jamboree on the internet), JOTA(Jamboree on the air) 등을 통해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해왔다.

2. 세계시민의식과 SDGs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핵심역량은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으로(UNAI, 2016), 이는 지역 및 국가정체성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사회정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의 인류 보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역량이라고 정의된다(Cogan, 2000; Reysen & Katzarska-Miller, 2013; Snider, Reysen, & Katzarska-Miller, 2013; 윤성혜, 2017 재인용). UN은 인류의 보편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UN에서 2000년에 채택되었으며,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AIDS 등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등 8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이행되어 왔다. 이 8대 목표는 “1.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반감 2. 모든 혜택 부여 3.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녀차별 철폐 4.5세 이하 아동사망률 2/3 감소 5. 산모 사망률 3/4 감소 6. 말라리아와 AIDS 확산 저지 7. 안전한 식수와 위생환경 접근 불가능 인구 반감 8. MDGs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주요지표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아 15년간 이행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 온 의제이다.

MDG's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분야 중심 정부 위주였던 것과 달리,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난 15년간(2001~2015) 국제사회의 목표였던 MDGs를 이어나가는 국제사회의 목표라는 점에서는 계승적이지만, 개도국 중심이기는 하나 선진국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통합까지 고려한 변혁성이 있으며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킨다는 포용성의 특징”을 가진다(이재완, 2015)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는데 그림1은 1부터 17까지의 목표를 나열형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림1은 온라인 자료의 다이어그램을 번역하여 제시한 것이다. SDGs의 내용은 우선 세계인의 웰빙을 위해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5. 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

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연환경 차원에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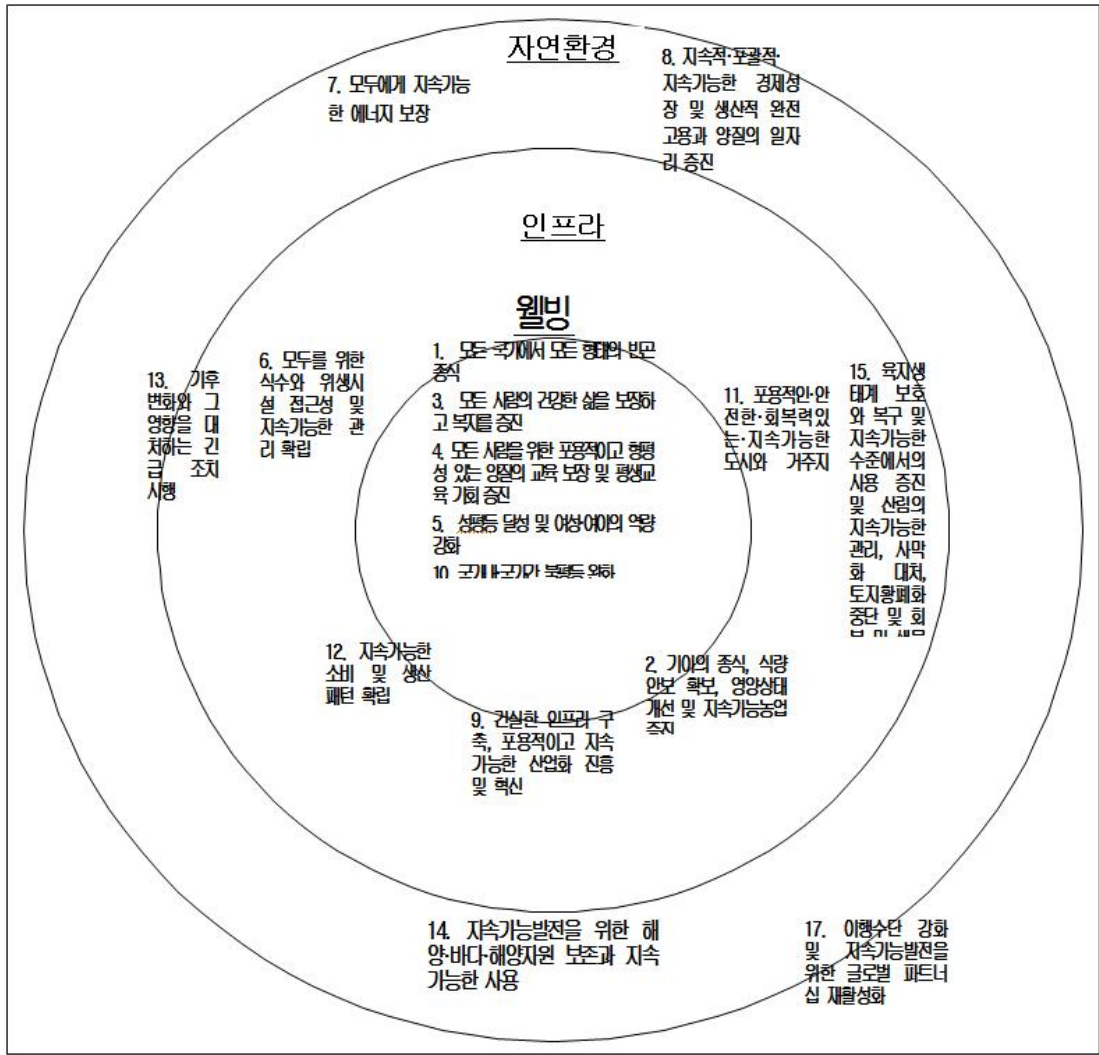


그림 1 Govern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actions, infrastructures, and institutions/Published Online March 30, 2015 [http://dx.doi.org/10.1016/S2214-109X\(15\)70112-9](http://dx.doi.org/10.1016/S2214-109X(15)70112-9) www.thelancet.com/lancetgh Vol 3 May 2015

윤성혜(2017)는 세계시민의식 척도 개발 논문을 작성하면서 세계시민의식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조사 인용하였다. “세계시민의식은 역량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 지라는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김선미, 남경희, 2003; 월드비전, 2015; Oxfam, 2015). 지식 차원에서 세계시민의식은 국가사회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Cogan,

2000),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넘어서 인류와 세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송민경, 2014). 또한 스킬 측면에서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적·지역적 참여 행동에 필요한 스킬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공감, 자기인식과 반성, 의사소통과 네트워킹 능력 등을 포함한다(Oxfam, 2015). 태도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다른 사람의 견해와 감정, 다양성 등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헌신하는 태도이다(Cogan, 2000; Oxfam, 2015). 나아가 앞의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마지막 요소인 실천의지이다(월드비전, 2015).”

Ⅲ.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개발 및 시행 결과

1.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개발 과정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는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온 한국스카우트연맹이 1991년 제 17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할 당시의 모토인 ‘세계는 하나’를 부제로 삼아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 제4298호로 등록을 마친 이후, 2015년 10월 15일~16일에 제1회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는 9월 25일 UN에서 160여 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SDGs를 UN공식채택 3주 만에 캠프에 적용시켜서 실

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회 세계시민아웃도어 캠프는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신인순과 유인선이 개발하였다. 실행 지도자는 신인순, 박혜정, 유인선, 장우석, 김홍기, 박동혁, 이인선, 김정일, 홍혜자, 성지은, 오경중 등이었다. 이 연구는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캠프에 참가한 한국스카우트경기 남부 연맹의 강하중학교, 이천경남중학교, 관양중학교, 부천지역대, 청룡지역대, 만세지역대, 청머루지역대, 남한산성지역대 대원 44명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캠프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캠프에 참여하여 야영장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행 후 수정 보완하였으며 캠프 참가자의 설문은 캠프 후에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외국 여행 경험, 외국체류 경험 등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12	2	4.6
	13	5	11.4
	14	14	31.8
	15	13	29.5
	16	9	20.5
	17	1	2.3
	합계	44	100.0
성별	남	36	81.8
	여	8	18.2
	합계	44	100.0
외국에 가본 경험	있다	26	59.1
	없다	18	40.9
	합계	44	100.0
1년 이상 외국에 살아본 경험	있다	1	2.3
	없다	43	97.7
	합계	44	100.0

표 1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은 12세에서 17세였으며, 성별은 남학생 36명(81.8%), 여학생 8명(18.2%)였다. 외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6명(59.1%)였고, 18명(40.9%)은 경험이 없었으며, 1년 이상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명(2.3%),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43명(97.7%)이었다.

2.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의 주요활동 내용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의 주요활동 내용>

	활동내용	활동목표, 출처
공존의 법칙	참가자들이 넓은 빈 공간에 자유롭게 서도록 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모든 참가자들 중 아무나 2명을 마음 속으로만 생각해 삼각형의 균형을 잡아 서게 한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2명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삼각형을 다 이루었는지 확인한 후 조금씩 움직이도록 한다. 움직일 때 이 삼각형의 균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다가 멈추도록 한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물어본다.	1. 활동목표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계의 '시스템'에서 상호연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2. 출처 : UNESCO의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 만나다' 책자에서 발췌하여 사용한다.
세계시민 빙고	1. 각 조에 사전과제를 통해 수합한 다양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정의가 적힌 종이를 배부한다. 2. 조원들은 그 중에 조원들이 동의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9가지 단어를 골라 3x3 빙고판에 적는다. 3. 빙고가 시작되면 조별로 돌아가며 단어를 부른다. 4. 불리워진 단어가 각조별로 빙고판에 있는 경우 지우도록 한다. 5. 3줄을 먼저 지운 팀이 우승팀이 된다.	1. 활동목표 : 세계시민은 다양한 면모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한다. 2. 출처 : 세계시민에 관한 캠프사전과제를 받아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합의도출 워크숍	1. SDGs 17개 항목을 토대로 여러 가지 문장을 제시한다. 2. 조원 중에 누구라도 X라고 표시한	1. 활동목표 : SDGs 17개 항목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개인의 생각을

	<p>부분(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O이라고 동의할 때까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다.</p> <p>3. 모두 동의를 한 문장이 완성되면 조원 중 한명이 조원 모두에게 카드 하나하나 내용을 읽어주고 의의가 없는지 확인한다.</p> <p>4. 의의가 있을 경우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p> <p>5. 조별로 도출된 합의 안을 발표하게 하고 다른 조는 내용 수정의 여타 대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p>	<p>좁혀나가며 '우리'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실시한다.</p> <p>2. 출처 : 방법은 미국의 Reed College에서 매년 7월 열리는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orkshop 내용 중 일부를 차용하고, 주제는 SDGs 17개항을 채택한다.</p>
<p>빈디 게임</p>	<p>게임을 통해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해 경험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p> <p>조별로 자리에 앉으면 상담강사는 조원수만큼의 스티커를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앉는다.</p> <p>상담강사는 조원들의 이마에 빨강, 노랑, 초록색의 빈디스티커를 무작위로 붙여준다.</p> <p>이때 참가자가 자신의 이마에 붙은 빈디스티커의 색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감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참가자의 빈디 색깔도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p> <p>참가자들은 5분 동안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p> <p>그러나 이때 빈디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화를 내면서 질문과 답을 하고, 노란색이면 무뚝뚝하게, 초록색이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p> <p>대화시간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 상담강사는 각 색깔별로 손을 들어보도록 하여 자신의 빈디색을 맞춰 보도록 한다. 맞힌 사람이 몇 명인지 체크해 둔다.</p> <p>빈디스티커를 떼어 자신이 생각한 색깔과 실제로 붙이고 있던 빈디의 색이 같은지 확인하게 한다. 이유도 모른 채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거나 무뚝뚝한 반응을 겪었던 빨간색과 노란색 빈디 참가자에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본다.</p> <p>대부분은 기분이 나쁘거나 실제로 화가 났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차별한 적은 없었는지, 그 차별의</p>	<p>1. 활동목표 : 차별의 부당함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p> <p>2. 출처 : UNESCO의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책자에서 발췌하여 사용한다.</p> <p>3. 참고사항 : 빈디란 인도 여성의 이마에 찍는 작은 점으로 힌두어로 '방울', '작은 조각', '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빈두(Bindu)'에 어원을 두고 있다.</p>

	이유가 외모나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다.	
세계시민 축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SDG's 17개 항목 중 조별로 선호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검찰 경우 적절하게 배분) 지도자들이 조별로 배치되어 이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세계시민으로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토론하고 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예. RAP, Dance, 노래, 판소리, 마임 등등. 다양한 방법 사용 독려). 조별로 1개 주제는 실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다른 한 주제는 UCC를 준비하여 발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 :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활동으로 체화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출처 : 방법은 2012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 캠프의 마지막날 저녁 프로그램을 차용하고 주제는 SDGs 17개 항목을 채택한다..

표 2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 주요활동내용

3. 합의도출 워크숍의 결과

합의도출 워크숍은 캠프의 핵심활동이며 세계 시민교육의 성과를 가지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 활동은 합의적(consensus) 의사 결정과 다수결 원리를 강조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연습활동이다.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리는 숙의민주주의에서는 단순한 투표보다 실제적인 숙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SDGs를 주제로 합의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 제시한 합의 전 문장을, 전 조원들이 최대한 토론하여 다듬은 후 전체 참가자가 다시 동의한 합의 후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소 힘에 겨워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 중에 모아가는 시간은 참가자에게 협력하는 보람을 체험하게 한다. 다음은 제1회 캠프 중 합의도출 워크숍의 결과물이다.

<합의도출 활동의 결과>

SDGs	합의 전 (합의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한 문장을 일부러 작성하여 제시)	합의 후 (조원들이 최대한 합의하여 바람직하게 다듬은 문장)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우리나라 먼저 모든 형태의 빈곤이 종식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빈곤이 종식되어야 한다.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식량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 식량을 필요한 만큼 생산해

	중요하다.	공급한다. 기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특권층의 복지를 증진해야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복지를 증진해야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되 교육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배울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연령에 상관없이 보장한다.
5. 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기 때문에 여아와 여성의 역량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는 없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어찌 되었든 자연을 개발하여 위생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이용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힘든 곳에 위생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화석연료든 원자력 연료든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	-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급여나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일자리의 개수를 먼저 늘려야 한다.	급여나 근무조건을 조정하면서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개수를 늘려야 하되,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중저소득국가에 직접 인프라를 건설하고 최신 기술들을 수출해야한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중저소득국가에 직접 인프라를 건설하고 최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국가별 발전을 이룬 후에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해결하는 것이 좋다.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량주거지(SLUM)을 모두 없애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세운다	-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여 풍족한 시대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가 변화하고 있지만 드러난 문제가 적고 생물도 적응하고 있으니 당장 대응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기후가 변화하여 드러난 문제가 많아 생물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대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바다, 해양자원은 무궁무진하므로 더 많이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바다해양자원을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자원을 찾아야한다.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지만 사막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생물의 다양성은 빈곤, 식량, 보건, 환경 문제들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막화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은 빈곤, 식량, 보건, 환경 문제들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시민들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모르더라도 기존의 법제도를 그냥 믿고 잘 따르면 된다.	시민들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기존의 법제도를 시민들과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평화를 위해 세계와 협력하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여유가 있을 때만 돕고 협력하면 된다.	-

표 3 합의도출 활동의 결과

4. 캠프참여자의 세계시민의식 측정 결과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다양하다. 최근 윤성혜(2017)는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로 구분한 역량 관점의 기준이 실증적으로도 타당한 구성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전에는 Hett(1993)가 개발한 Global-Mindness Scale이 많이 쓰였는데(Hett, 1993; Smith, et. al., 2008), 이 척도는 6점 척도로서 ‘책임감’(5문항), ‘연대감’(5문항), ‘효능감’(5문항)의 3가지 영역을 사용하였다(김정화, 박선희, 조상미, 2010). 구체적으로 책임감은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연대감은 세계시민과의 소속감과 친밀감의 결과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김정화 외, 2010). 효능감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효능감으로 자신의 행동이 국가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김정화 외, 2010).

지은림과 선광식(2007)은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국가정체 의식’, ‘다국적 의식’, ‘지구공동체 의식’등 4개 영역 25문항으로 구성

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김소영과 오미경(2015)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국제이해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한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국제문제 및 외국에 대한 태도 조사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문항을 추출하여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장주혜(2008)가 수정 보완한 것을 활용하였다. 신인순과 김옥순(2012)도 김신일 외(1995)에 의해 개발된 ‘국제이해교육 실태와 국제비교연구’의 척도인 ‘국제문제 및 외국에 대한 태도조사지’ 설문내용을 기초로 신혜영(2006)이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실태조사지’를 참고하여 수정 후 사용하였다. 신혜영(2006)은 Dower & Williams(2002)가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식의 중요 요소를 지식과 이해, 기능 및 ‘가치와 태도’로 나누고 있음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이중 가치와 태도 영역에 관련된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 10문항,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4문항,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15문항, 문제해결에 대한 가치존중 10문항, 세계지향성 10문항 등 5가지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신인순과 김옥순(2012)은 캠프상황을 감안하여, 동일한 5개 영역에서 24 문항을 축약 사용하였고, 이번 캠프에서도 동일한 2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표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

세계시민의식 영역	문항구성
인간의 보편적 가치	1. 지구의 환경오염 책임소재 2. 아프리카 기아문제에 공감 여부 3. 기아에 대한 지원의사 4. 이타성

	5.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6.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관심 차이 7.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 여부 8. 행동방식이나 문화 차이에 대한 불편 정도 9. 외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정도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10. 환경에 대한 관심1 11. 환경에 대한 관심2 12.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 13.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14.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15. 국제경제에 대한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16. 분리수거 실천 여부 17. 음식물 쓰레기 실천 노력 18. 삼푸 사용여부 19.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관심 20. 세계 평화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21. 지구환경과 국익 중 우선시 하는 것 22. 다른나라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23. 지구촌 의식 정도 24. 국익보다 인류의 이익이 중요함을 아동들에게 교육할 필요에 대한 의견

문항 6, 7, 8, 18, 21, 22는 역코딩 질문으로 구성

표 4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참가자의 세계시민의식 평균>

세계시민의식 영역	세계시민 아웃도어캠프 (n=44)		학교연계 세계시민교육1) (n=216)		지구촌몽골캠프2) (n=8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세계시민의식 영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간의보편적가치	4.2114	.48475	4.0676	.75629	4.2700	.52202
다양성에대한가치존중	3.7557	.75769	3.3245	.78825	3.8750	.68321
세계문제에대한흥미와 관심	3.7216	.67508	3.6551	1.00374	3.6271	.70723
문제해결에대한참여의지	3.6812	.56054	3.4861	.87220	3.7650	.55005
세계지향성	3.5155	.57076	3.5432	.91573	3.9000	.62683

표 5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참가자의 세계시민의식 평균

- 1) 김옥순, 신인순(2013)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VOL. 36
2) 신인순, 김옥순 (201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 37

인간의 보편적 가치 영역은 지구의 환경오염 책임소재, 아프리카 기아문제에 공감 여부, 기아에 대한 지원의사, 이타성,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 등으로 구성되었고 5점 만점에 평균 4.2114로 나타나, 나머지 다양성에대한 가치 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영역 등 4개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월드비전의 2012년 학교 연계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216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중 인간의 보편적 가치 영역 평균 4.0676, 유니세프 2012년 지구촌 몽골 캠프 참가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한 측정한 결과 중 인간의 보편적 가치 영역 평균 4.2700와 비교해볼 때 통계적 의미는 아니나 중간 점수에 해당한다.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은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관심 차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 여부, 행동방식이나 문화 차이에 대한 불편 정도, 외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정도 등으로 구성되었고 5점 만점에 평균 3.7557로 나타나, 나머지 인간의 보편적 가치,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포함 5개 영역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 영역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월드비전의 학교 연계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연구결과 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 평균 3.3245,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 캠프 결과 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 평균 3.8750와 비교해볼 때 중간 점수에 해당한다.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은 환경에 대한 관심,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국제경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성되었고 5점

만점에 평균 3.7216로 나타나, 나머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포함 5개 영역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 다음으로 3번째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월드비전의 학교 연계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연구결과 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 평균 3.6551,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 캠프 결과 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 평균 3.6271와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은 분리수거 실천 여부, 음식물 쓰레기 실천 노력, 삼푸 사용여부,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관심, 세계평화에 대한 참여의지로 구성되었고 5점 만점에 평균 3.6812로 나타나 나머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지향성 포함 5개 영역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 다음으로 4번째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월드비전의 학교 연계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연구결과 중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 평균 3.4861,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 캠프 결과 중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영역 평균 3.7650와 비교해볼 때도 중간 점수에 해당한다.

세계지향성 영역은 지구환경과 국익 중 우선시 하는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지구촌 의식 정도, 국익보다 인류의 이익이 중요함을 아동들에게 교육할 필요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고 5점 만점에 평균 3.5155로 나타나 나머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포함 5

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월드비전의 학교 연계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 연구결과 중 세계지향성 영역 평균 3.5432, 유니세프 지구촌 몽골 캠프 결과 중 세계지향성 영역 평균 3.9000와 비교해볼 때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IV. 캠프 평가와 세계시민의식설문 결과 분석

제1회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를 시행하고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를 UN채택 3주 만에 캠프에서 국가의 대표적 청소년인증프로그램 주제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의제의 발 빠른 전달과 실행을 이루었다.

둘째, 아웃도어를 캠프명에 명시했으나 합 의도출, 빙고 등의 주요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대그룹활동과 소그룹활동이 적절히 배분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실천의지를 다져야 하는 세계시민교육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의차원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세계시민의식 5개 영역에서 세계지향성 영역의 평균이 특별히 낮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개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의 17개 목표를 모두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캠프라는 특성에 맞게 가벼운 국제이해교육활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여러나라의 인사법으로 같은 인사를 하는 청소년과 지도자가 모듬을 구성하게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보완하고, 게임 속에서 차별을 경험해봄으로써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체험적 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아웃도어라는 캠프 특성에 걸맞도록 여러나라 인사법으로 야외에서 모듬만들기, 난민체험 하이킹, 야외명상 형식의 나의 다짐 등의 재미와 주제중심적 야외활동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외취사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여 공동체의식의 체험을 강화한다.

셋째, 캠프운영이 1박2일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대그룹, 소그룹이 잘 활용되도록 진행하되 개인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의미를 배가시키므로 개인차원의 활동을 보완하도록 한다. 가제는 나의 다짐으로 정하고 폐영식 전에 캠프장 곳곳에서 혼자 잠시 명상을 통해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자하는 실행의지를 다지며 이를 나무 조각에 새겨 기념품으로 소장하며, 폐영 이후 일상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실천해 나가도록 독려한다.

넷째, 세계시민아웃도어 캠프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의 세계시민의식 평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유독 세계지향성이 낮은 것은 ‘지구환경과 국익 중 우선시 하는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지구촌 의식 정도, 국익보다 인류의 이익이 중요함’ 등의 설문 항목을 고려해 볼 때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로 시작되는 스카우트 선서 첫 항목에서 강조하는 ‘애국심’ ‘충성’ 등의 가치와의 충돌일 수가 있다. 이는 제2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뿐만 아니라 스카우트 운동이 창립 100년을 넘어 향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 방향성에 대해 좀더 깊은 숙고와 변모를 요구하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세계화라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민성에 관한 소재는 결국 국가에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김경래, 2010), 공동체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시켜 지구촌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며 인류애를 키워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인증프로그램 제4298호로 인증을 마친 이후,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공표 3주만에 바로 캠프에 적용시켜서 실시한 제1회 세계시민아웃도어캠프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1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 세계는 하나 - 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였다.

첫째, SDGs를 캠프 주제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첫 시행이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아웃도어캠프임에도 주요활동이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에 걸맞게 개인적으로 실천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참가 청소년은 세계시민의식 중 세계지향성이 낮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개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캠프답게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 같은 인사를 하며 모둠을 구성하게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보완하고, 차별을 경험해봄으로써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다짐을 갖게 하는 빈디게임을 강화한다.

둘째, 아웃도어라는 특성에 걸맞도록 여러 나라 인사법으로 모둠 만들기, 난민체험 하이킹, 나의 다짐, 야외취사 등 야외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나의 다짐을 추가하여 자연 속 명상으로 참가자의 실천의지를 다지게 한다.

넷째, 유독 참가자들의 세계지향성이 낮은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애를 넘어 인류애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완한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제2회 세계시민 아웃도어 캠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 하는 모듬을 정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차별을 경험하는 빈디 게임, 합의도출 활동, 세계시민축제,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며 하이킹을 하는 난민체험 하이킹, 실행의지를 다지는 야외명상 나의다짐 등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사례수가 많지 않고, 1회 시행한 캠프의 내용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세계시민교육이 다양한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실행되고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체화되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정개정총론. <http://cutis.mest.go.kr> (2013. 2.20).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7월 17일 보도자료
구자역. 2010. 중국의 “2010~2020년 국가중
장기 교육개혁전략”과 그 의미.
- 구정화. 2008. “국제이해교육이 초등학생의 세
계이해 태도에 미치는 효과 -유네스코의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활동 적용을 통해”. 『시민교육연구』. 40(2): 31-51.
- 김경래. 2010. “세계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성”. 『인문사회과학연구』. 27: 86-105.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
괄보고서”.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38.
- 김기홍, 박소영. 2009. “미국 국제이해교육의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국제이해교육에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수산해양교육연
구』. 21(1), 통권43호 106-120.
- 김소영, 오미경. 2015. “뇌교육 인성프로그램
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해피스
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뇌교육연
구』. 16: 1-35.
- 김영순. 2010. “교육기부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리매김”. 인천교육 심포지움, 33-44.
- 김옥순, 신인순. 2013.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
소년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연계형 창
의적 체험활동의 일례를 중심으로”. 『청
소년문화포럼』 36: 7-28.
- 김왕근. 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8(1) : 45-68.
- 김정화, 박선희, 조상미. 2010. “한국 대학생
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
적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 정책의 연계방
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10-R08.
- 미지센터. 2016. 눈에 똑똑 귀에 톡톡 세계시
민교육-지구마을 이야기 <http://goo.gl/fVfypm>.
- 배미희, 김홍순, 김청송. 2012. “창의적 체험
활동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
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309-325.
- 서울시 교육청 창의체험마당 소개.
<http://crezone.sen.go.kr> (2013. 2. 20).
- 신인순, 김옥순. 201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인문사회
과학연구』. 37: 5-34.
- 신혜영. 2006.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세계시민
의식 실태분석-가치와 태도중심으로”. 서
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심연수. 2008. 『시민성과 교육』. 광주: 광인
문화사.
- _____. 2010.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27: 5-27.
- _____. 2013.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인의 시
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38: 39-6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비교 연구』. 서울:명일문화
사.
- 윤성혜. 2017. “대학생용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92.
- 이경희. 2012.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
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교육
시책현장연구대회 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

원.

- 이재완, 이태주, 권윤희, 유웅조. 2015. “SDGs의 의미와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2030 개발의제 시대의 SDGs와 이행전략 세미나 자료집, 11-16, 주최: 국회 UN SDGs포럼,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개발협력학회, Action 2015 Korea, 한국개발정책학회, 주관: 국회입법조사처, KoFID, 국제개발협력학회.
- 이중한. 1999. “문화산업기반에 대한 오해와 오류”. 『문화복지포럼자료집』.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
- 지은림, 선광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천호성. 2011. “한·일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1): 137-156.
-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 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1-132

Non-Korean References

- Chin, A. ; Jacobsson, T. , (2016)
TheGoals.org: Mobile global educatio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 June
2016, Vol.123, 227-229.
- Ward, Michael(2015). Education, learning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Sep 2015, Issue 303,
11.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General Curriculum Revision. [Http://cutis.mest.go.kr](http://cutis.mest.go.kr) (2013. 2.20)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uly 17, 2012 Press Release
- Gu Ja-yuk. 2010. "China's 2010-2020 National Medium and Long-term Education Reform Strategy" and its meaning.
- Gu, Jeong-hwa. 2008. Effects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World Understanding – Through Application of UNESCO' s Cultural Classroom with Foreigners (CCAP). Korean Society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itizen Education Research* 40(2): 31-51.
- Kim, Kyoung-rae. 2010. Globalization,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27: 86-105.
- Kim, Ki-young, Jang, Geun-young, Jo, Kwang-su, Park, Hyun-joon. 2010. Study on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Youth Core Competency III: General Report. Seoul: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1-238.
- Kim, So-young, Oh, Mi-kyoung. 2015. Influence of Brain Education Personality Program on Global Citizenship – Focusing on Happy School Program – *Brain Education Research* 16. 1-35.
- Kim, Young-soon. 2010. Educational donation and positioning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Incheon Education Symposium, 33-44.
- Kim, Ok-soon, Shin, In-soon. 2013. A Study on Youth Participating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cusing on Examples of Community-base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Youth Culture Forum* 36: 7-28.
- Kim, Wang-geun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itizen Education Research* 28(1): 45-68.
- Kim, Jeong-hwa, Park, Sun-hye, Cho, Sang-mi (2010). The influence of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diversity attitude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Youth Education* 17(4): 183-210.
- Kim, Hyun-chul, Choi, Chang-wook, Min Kyung-suk. 2010.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and Youth Activity Policy.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10-R08.
- MIZY Center. 2016. "World Citizen Education – Earth Village Talk."
- Bae, Mi-mee, Kim, Hong-sun, Kim, Chung-song. 2012. The Effect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on Group Bullying Phenomenon in Adolescents. *Youth Studies* 19(9). 309-325.
- Introduction to the Experience site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ttp://crezone.sen.go.kr](http://crezone.sen.go.kr) (February 20, 2013).
- Shim, Yeon-su. 2008. Citizenship education,

- Gwangju: Gwangin cultural history.
- _____. 2010. The Meaning of Political Citizenship in Korean Socie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27: 5-27.
- _____. 2013. A Study on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of Koreans for National Integration.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8: 39-67.
- Shin, In-soon, Kim, Ok-soon. 2012. The Effect of Youth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y on Global Citizenship Consciousnes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37: 5-34.
- Shin, Hye-young. 2006. Analysis of World Citizens'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 Focused on Values and Attitudes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 Korean Commission of UNESCO. 1995.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Seoul: Myung Il Cultural History.
- Yoon, Sung-hye. 2017. Developing a Global Citizenship Scale for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1-192.
- Lee, Kyoung-hee. 2012.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and Activation Plan. Educational Policy Research Report. Gyeonggi Provinci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 Lee, Jae-wan, Lee, Tae-Ju, Kwon, Yul, Yu, Woong-jo. 2015.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SDGs and the meaning of SDGs, SDGs and Implementation Strategy Seminar in the 20th Century Development Forum, 11-16, Organizer: UN SDGs Forum,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Bureau,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sociation, Action 2015 Korea, Korea Development Policy Association, Organized by: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FI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ciety.
- Lee, Jung-hwan. 1999. Misunderstandings and errors about the foundation of cultural industry. Cultural Welfare Forum. Korea Cultural Welfare Council.
- Rim, Gi-mun, Sun, kwang-sik.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global citizen consciousness and analyze the related variables, *Citizen Education Research* 39(4): 115-134.
- Chun Ho-seong. 20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vised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Elementary School." *Korea and Japan Education Research* 16 (1): 137-156.
- Han, Kyung-koo, Kim, Jong-hoon, Lee Gyu-young, Cho, Dae-hoon. 2015. Global Citizen Education Promotion in the Age of SDGs, Seoul: UNESCO Asia Pacific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Center, 1-132.